맞춰 조계종 총무원도 '사찰 사회활동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해 복지 · 생태 · NGO분야 등에 지역 사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포교 · 문화 · 복지 · 환경 · 청소년 · NGO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범사찰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지역불교 활성화하자

분야별 모범사찰



그림 · 박구원

사찰 재정 30% 복지예산

사회복지 - 신흥사

속초 신흥사(주지 법장)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97년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을 설립하고 복지를 통한 지역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반야무료노인양로원, 속초종합복지관, 신도림복지관, 구로복지관, 반야어린이집, 장사룸비니어린이집 등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신흥사는 사찰재정의 30%를 복지예산으로 투여하고 있다. 특히 98년 총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반야노인무료양로원은 신흥사복지원의 대표적인 시설로 부지 1천1백평 건평 3백20평의 최신시설로 지역사회 모범 노인양로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구로복지관이 99년 서울시 복지관 종합감사결과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개별독서지도, 집단동아리활동, 작품발표 등 어린이 프로그램이 수범사례에 선정돼 서울시장의 표창을 받는 등 복지관 운영이 모범적이다.

속초복지관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의료 법률자문 밀반찬 요리 등 8개팀 2백5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캠프도 국내최초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호평을 받고 있다.

신흥사는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은 복지실천이라는 원력으로 시대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올곧게 지역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내 장애인을 위한 근로복지관 부랑인시설 여성쉼터 설립을 모색 중이다.

김원우기자

각종 교양교실 '시민발길'

지역포교 - 삼광사

도심속의 사찰은 도시인들의 쉼터이자 정진외 장이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삼광사는 지역별 법회를 통한 신심 진작을 기본으로 크게 불우 이웃을 위한 후원금 지원,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 제공, 각종 교양교실 개강 등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등 불우 이웃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은 이미 연례 행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지역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물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셈.

또한 삼광사내에 있는 법당은 법회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각종 교양교실이 열리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삼광사가 열고 있는 삼광한글학교, 한문서당, 서예교실이 그 대표적인 예. 한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삼광한글학교는 이제 역사를 자랑하며 노인복지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중고등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200석 규모의 독서실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삼광사가 펼치고 있는 지역 포교사업은 다양하다.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 결연, 진구 관할 중학교 학예제 시 지관전 무료 대여, 유물관 무료 개방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활짝 열려 있는 사찰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천미희 기자

문화체험 공간 '자리매김'

문화포교 - 통도사

사찰 곳곳에 면면히 맥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문화, 전통문화를 십분 활용한 포교야말로 사람들의 내면에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포교다. 문화를 근간으로 한 양산 통도사(주지 신허)와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해)의 포교 노력이 보다 가치있는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도사는 성보박물관 관람을 통한 간접 문화체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 개설된 서각공예반, 불화그리기반, 사진반, 다도반, 꽃꽂이반, 연구답사반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한 직접적인 문화체험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성보박물관대학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쌓게 해 문화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보박물관은 정기적으로 괘불탱 특별전, 월저 김진조 선생 기증 서양화 특별전 등의 전시회와 성보예불제, 산사음악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기획, '문화가 있는 산사'로 통도사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통도사의 문화포교는 전통불교문화와 불교 의식 복원을 통해 느낌과 감동이 살아 있는 불교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또 통도사가 부산에 개설한 포교원(원장 심산)이 운영중인 문화관의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어머니합창단, 국악단, 사물놀이반, 우바이 무용단등의 활동은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불교문화를 보다 일상적이고 쉬운 것으로 이해시켜,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한 포교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천미희 기자

불교적 도·농공동체 지향

생태사찰 - 실상사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생태마을 즉, 불교적 도 · 농공동체를 지향한다.

실상사 인근 지리산 자락 산내면 백일리에 구성될 생태산촌마을은 3,750평의 교육장부지와 3만평의 실상사농장(제1실습장), 4만평의 제2실습장에 법인출자금 4억원, 중 · 소농 고품질사업비 2억5천만원, 교육장 정부보조금 3억원(자부담 20%) 등 총 9억5천만원을 들여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는 지역두레마을과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상사는 2001년에 강의동과 숙소, 환경농업전시관 · 유기농하우스 · 지역발전센터 등을 설치하고 2002년 식물클리닉 · 유기농과수원 · 주말농장 · 귀농자주택 · 유기농산물판매장, 2003년 생태체험학교 · 농업컨설팅센터 · 농산물가공실 · 그린음악실습장 · 황토방 · 도자기공예실 · 명상수련원, 2004년 환경농업전문대학 · 천적사육장 · 주민복지관 · 자연휴양촌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실상사는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농업교육과 자녀들을 위한 중학과정의 대안학교, 귀농인들이 만드는 생태마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영농조합 또는 학교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공개적으로 승계하면서 불교 생태공동체운동의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재경 기자

도서실-동아리방 등 운영

청소년 포교 - 옥련암

아산 옥련암(주지 종인)은 매우 작은 사찰이다. 대웅전과 삼성각 및 요사체가 전부다. 그러나 지금은 옥련암하면 지역에서 '청소년 포교와 교화의 모범사찰'로 통한다.

옥련암은 81년 초 · 중 · 고 불교학생회를 조직하고 청소년 포교를 시작했다. 한국불교에 가장 시급한 불사는 바로 인재불사라는 인식하에 주지스님과 사찰 신도회는 지난 19년간 청소년 포교에 매진해왔다. 특히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과 재정을 공개한 것이 신도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사찰과 신도회가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지난 97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산시내 '사단법인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을 설립하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화활동에 나섰다. 처음에는 지역내 청소년 문화활동 경험이 없어 청교련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방법 등 노하우를 배워 지금은 지역내 청소년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은 무료공부방, 문화의집, 동아리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공부방은 95석의 좌석과 3,500권의 도서를 확보해 청소년에게 개방하고 있고, 동아리방은 댄스, 독서토론회 등 10여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문화의집은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등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고민과 과제를 해결해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항상 열려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옥련암은 지역불교활성화와 청소년 포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작은 권리찾기 운동' 전개

NGO 활동 - 미륭사

부산 미륭사(주지 정각)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정의 모든 부분을 감시하고 바르게 이끌도록 하는 활동 즉,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NGO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작은 권리찾기 운동' 등 시민들과 밀접한 시민운동을 벌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 제고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활동이 미약한 인권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주지 정각스님은 2001년을 불교인권센터 조직강화의 해로 정했다. 정각스님은 각종 교도소 교화활동을 벌이며 자칫 무시되기 쉬운 재소자들의 인권 보호운동을 펼치면서 환경운동, 경제정의를 위한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미륭사가 펼치고 있는 또 다른 NGO활동분야는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활동. 부산불교자비원을 통해 무료노인병원인 새부산복지센터와 희망노인병원에 매일 300명분의 점심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구랍 27일 코모도호텔에서 100명의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선족 기자들을 초청, 6개월간의 연수를 실시해 우리나라 바로 알리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현재 정각스님이 가진 직함은 부산불교교권수호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부산인권센터 상임공동대표, 청소년문화재단 원장 등 무려 15가지. 다양한 시민 · 사회활동을 펼침으로써 사찰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조실 석주
주지 원혜

봉은학림
사부대중이 한자리에서 경전을 공부하며 지혜의 텃밭을 가꿉니다.

봉은선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불꽃,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되는 환희장 세계를 열어 갑니다.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가족과 함께하는 도량

한국불교의 중흥 도량, 도심 최고의 포교 도량으로 거듭 나고자 봉은사는 정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종무소 02-511-6070,4 팩스 02-544-2141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주 이혜성
주지 김광복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 FAX : 02)993-3164